

The Concept of Parenting Philosophy and a Suggestion of Direction of Korean Parenting Philosophy

Han, Youngsik (Soongsil University)

Lee, Kyunghwa¹⁾ (Soongsil University)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fine the concept of parenting philosophy and to explore the theoretical ground for suggesting the direction of Korean parenting philosophy. As a result, parenting philosophy meant how parenting factors, such as the view of the human development and the children, parenting values, parenting belief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leading parents to support their children's cognitive, emotional, physical and social development, were established. Namely, parenting philosophy was defined as a meta-organization consisting of the recognition and value systems of the parent's overall rearing. Meanwhile, after exploring reality analysis and theoretical grounds, a direction was proposed as follows: First, it suggested that self-realization and democratic parenting philosophy with regard to the attitude of children's lives was warranted. Second, the parenting philosophy of the subjective formation of cognitive schema and the social and cultural interaction with regard to cognitive development was suggested. Third, the parenting philosophy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interest with regard to children's social relationships was suggested. The proposed direction was believed to help Korean parents reflect on competitive and realistic parenting and encouraged parents to have the right parenting attitude and behavior in order to nurture future generations.

Key Words : Parenting, parenting philosophy, theoretical ground of parenting, direction of Korean parenting philosophy

1) Corresponding Author: Lee, kyung-Hwa,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369 Sangdo-Ro, Dongjak-Gu, Seoul, Korea, 06978 / E-mail: khlee@ssu.ac.kr

양육철학의 개념과 우리나라 부모양육철학의 방향성 제안

한영식 (숭실대학교)

이경화¹⁾ (숭실대학교)

< 요약 >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가 갖는 양육철학과 양육신념이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모양육철학의 개념과 방향성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양육철학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동서양의 다양한 문헌을 분석하여 양육철학의 개념을 정의하고, 우리나라 부모의 양육신념을 체계화하기 위한 부모양육철학의 방향성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양육철학은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발달에 대한 지원을 이끄는 인간관, 아동관, 인간관계, 양육가치, 심리적 요인 등의 요인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의미구조라는 관점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양육철학이란 ‘양육실제와 양육자의 양육태도 및 행동에 배경을 제공하는, 부모의 양육 전반에 대한 인식 및 가치체계가 일관되어 있는 메타적 구성체이다’ 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뚜렷한 양육철학을 가지지 못한 양육현실을 고려하여, 한국부모의 양육철학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삶의 태도와 관련하여 자아실현과 민주적 양육철학을 제안하였다. 자아실현의 양육철학은 아동이 자기 행동의 주체로서 자기지시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게 돕는 양육철학이며, 민주적 양육철학은 평등성에 근거하여 부모와 자녀 상호 인격체와 아동의 세계를 존중하는 양육철학이다. 둘째, 인지발달과 관련하여 인지도식의 주체적 형성과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의 양육철학을 제안한다. 인지도식의 주체적 형성의 양육철학은 아동을 인지도식의 주체적 구성자로 보고, 인지발달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발달을 돕는 양육철학이며,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의 양육철학은 사회적 상황과 인류 문화유산을 자원으로 아동과 담화하여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를 돕고, 재구성의 과정을 통해 문화 창달자로서의 역량을 돕는 양육철학이다. 셋째, 사회적 관계와 관련하여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관심의 양육철학을 제안한다. 사회적 지지의 양육철학은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위기를 이해하고 발달 단계별로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양육철학이며, 사회적 관심의 양육철학은 아동이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협력하는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돕는 양육철학이다.

주요어 : 양육, 양육철학, 양육철학 방향의 이론적 근거, 한국 부모양육철학의 방향성

1) 교신저자: 이경화, 교수, (06978)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369, 숭실대학교 / E-mail: khlee@ssu.ac.kr
논문투고: 2019. 8. 15 / 심사일자: 2019. 8. 19 / 게재확정일자: 2019. 9. 9

I. 서론

양육이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돕는 총체적 과정인 동시에 미래 세대를 키우는 일이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양육의 중요한 방향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발달의 주체가 누구라고 여기는지, 양육에서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등이 양육철학과 관련된 문제이다. 부모가 정립한 양육철학은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녀와 부모간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 사회의 미래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비록 아직까지는 양육철학이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양육철학은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행동, 양육실제 전반에 일관되게 작용하고 양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므로, 부모의 양육철학이 양육신념에 영향을 주고 이에 따라 부모역할이 결정될 것이다.

한국의 부모들은 지금까지 자녀양육에 대해 뚜렷한 철학을 정립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왔다. 특히 광복 이후에 서구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물밀 듯이 들어오면서 전통적 가치와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에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홍승직, 1969). 1963년부터 1973년까지 한국인의 교육관을 밝히기 위해 만 10년 동안 연구를 진행한 박준희(1975)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을 여전히 정립하지 못한 채 가족주의적 개인주의, 현실주의, 적응주의적인 양육방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1980년대에도 개선되지 못했음을 보고하였다. 한국 어머니와 아동에 대한 한국궤립조사연구소(1980)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어머니는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으며, 변호사, 대학교수, 고급 공무원 등 높은 사회적 지위의 직업군을 원하는 반면, 시민정신, 공정성, 실용성, 창의성 등 성숙한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질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도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말미암아 학교교육은 도덕성과 인성교육이 약화되어,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부모들은 입시 중심의 교육 풍토에 휘말려 어린 시기부터 지식중심의 조기교육에 열을 올렸다(김지신, 1996). 한편 197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인지이론들은 이론의 근본 취지와는 결맞지 않게 우리나라 부모들에게는 일류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유아기부터 지능을 높여야 한다는 부모들의 신념으로 발전하게 되어 그 결과 학원 수강, 과외 수업, 학습지 구독 등의 조기 사교육 열풍을 일으키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이원영, 1998). 이러한 왜곡된 풍토가 초래된 이유는 유교적 세계관에 의해 전통적으로 형성된 가족주의가 근대적 혼란기와 산업화시기를 거치며 가족 이기주의로 변형되었고, 이

는 자기 자식만 성공하면 된다는 경쟁의식과 자식의 성공은 가문의 성공이라는 신념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풍토에서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일체감, 연대성은(최상진, 1997), 자녀에게 통제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이원영, 1998),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 강한 성공기대감을 가지는 것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입시 경쟁에서 많은 심적 부담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신수진, 1998).

2000년대 들어서는 청소년들이 가진 심리적 압박감이 학교폭력, 왕따, 청소년 비행문제 등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현상은 학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교육을 혼란에 빠져들게 하였으며 사회적 위기감을 가져왔다. 따라서 이 시기를 자녀양육의 위기라 하였다(한경자, 2000). 최근에는 부모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뒤로한 채, 입시경쟁만이 가열되어 지식인 부모들이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록한 사례까지 발생했고(이진호, 2019), 딸들을 위해 기꺼이 시험지 유출이라는 범죄도 마다하지 않는 교육계 인사도 발생했다(김동환, 2019).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자기 자녀만은 좋은 대학교에 보내고 싶다는 부모의 사행심이 가져온 우리사회의 뼈아픈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녀양육의 위기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식인층 내에서조차 일부 가족이기주의로 인한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부모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철학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추세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식의 성공은 자신의 성공이고 가문의 성공이라는 신념하에 유아기부터 사교육을 시작하여 오랜 학령기 동안 상급학교에 진학시키는데 열을 올렸다. 이런 열기가 자녀 교육비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이제 어느 가정이나 할 것 없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은 당연한 것이 되었다. 교육비 부담은 젊은 부부들의 출산을 기피하고 포기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되어 버렸다(정우용, 2019). 오늘날 이와 같은 양육의 위기와 혼란이 발생하게 된 것은 부모 세대들이 올바른 양육철학을 정립하지 못한 데 있다고 본다. 청소년들이 부모들의 의식적, 무의식적 요구와 통제에 대해 저항하며 좌절과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을 때, 한국 부모들은 반성적 성찰을 통해 기존의 양육태도를 바꾸고 올바른 양육철학을 정립했어야 했다. 오랫동안 쌓여온 신념으로서의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새로운 철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철학이 지니는 근본적인 가치와 의미가 현존질서에 대해 반성하고 비판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할 때(임채광, 2005), 광복 이후 반성 없이 쌓여져 온 우리 사회의 파행적인 양육의 모습에 대해 반성적 성찰을 하고 새로운 비전의 양육철학을 정립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건강한 미래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건강하고 행복이 넘쳐나는 새로운 세

대를 기르는 일이기 때문이다(한경자, 2000).

지금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양육과 관련한 분야에서 양육철학이라는 용어와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으며 양육철학에 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양육을 철학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임채광, 2005). 양육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양육태도와 양육행동에 관한 것이었고, 양육의 인지적 변인으로서 양육신념, 양육가치 등의 개념이 정립되는 정도였다.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에 양육의 올바른 방향 전환이 요청되고 양육철학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에서, 문헌 연구를 통해 기존의 전통적 양육철학을 비교하여 논증함으로써 양육철학의 개념을 도출하고, 양육의 심리학적 관점을 고찰함으로써 양육철학의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대안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양육철학의 새로운 지평을 넓히는 일이며, 동시에 시의 적절한 작업이라 여겨진다. 특히, 양육철학의 개념이 정의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양육철학으로부터 양육철학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추출해내는 방식은 제한적인 양육철학 사례 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양육철학의 개념에 접근하는 차별적인 방식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본 연구의 목적인 양육철학의 개념 정립과 한국부모의 양육철학의 방향성 제안은 양육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려는 연구자들과 양육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부모들에게 양육철학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과정들을 통해 논의를 전개해 나가하고자 한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양육철학과 다른 유사개념들 간의 차별성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서양의 대표적인 전통적인 양육철학인 중세 기독교 양육철학과 우리나라의 유교 양육철학과 동학 양육철학을 비교함으로써, 양육철학의 개념적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양육철학의 심리학적 관점을 통해 대안적인 양육철학의 접근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논의를 통해 양육철학의 개념을 정의하고 한국부모의 양육철학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양육철학과 유사개념 간의 차별성 및 논리적 연관성

양육철학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지적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철학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하고 양육가치, 양육관, 양육신념 등의 용어와 함께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연구자에 따라 이러한 인지적 요인들에 대한 개념 인식이 다르고, 개념 간에 명확한 구분 없이 모호하게 사용되면서 개념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 분석과 문헌고찰을 통해 각 용어들의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이들 간의 차별성과 논리적 연관성을 밝혀 양육철학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한다.

첫째, 양육가치는 개념상의 혼란 없이 가치의 사전적 의미에 준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가치는 사물이나 행위가 바람직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거나 그러한 특성을 의미한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4). 양육가치에 대하여 Kohn(1969)은 양육을 통해 자녀의 행동에서 구현하고자하는 가치로 정의하였으며(Sigel, 1985 재인용), Segal(1985)은 양육을 통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가치로 정의하였다. 자율성, 순응성, 협동성, 사회성, 도덕성, 사회적 성공 등 부모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가치가 양육가치가 될 수 있으며, 양육을 통해 구현하고자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양육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둘째, 양육관이란 사전적 의미로 이상적인 양육에 대한 포괄적 견해라고 정의할 수 있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4). 우리나라의 양육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자들 간에 개념의 일관성 없이 나름대로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안지성과 신세니(2013)는 양육관을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행동을 포함한 양육방식, 그리고 부모역할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며,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이라 하였고, 김은설과 최혜선(2008)은 양육에 있어 갖게 되는 철학이나 사상, 태도, 가치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강문희와 윤지영(2002)이 연구대상자들의 양육관을 현대가치 양육관과 전통가치 양육관으로 밝힌 연구결과나, Trommsdorff(1989)가 일차적 통제지향과 이차적 통제지향으로 나누어 어머니들의 양육관을 밝힌 연구결과(강문희, 윤지영, 2002 재인용)로 추론하건대, 양육관은 특정 사회나 문화가 지향하는 양육에 관한 포괄적인 견해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양육관은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양육가치, 양육태도, 양육행동, 부모역할 등을 일관되게 같은 맥락으로 작동하게 하는 관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셋째, 양육신념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지적 요인인데,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학자들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전적 정의에 접근하여 신념의 개념을 분석한 Sigel(1985)에 의하면 어떤 지식을 사실 혹은 진실로서 수용하고 믿는 것을 신념이라고 한다. 이 정의에 근거하여 본다면 신념은 개인들이 참인 지식이라고 믿는 것으로 구성되며,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는 소망, 가치는 신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McGillicuddy-De Lisi(1985)는 양육신념을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구인으로서, 아동의 발달을 인지적으로 파악하는 틀로서 보았다. 이 관점은 양육신념 외에 양육가치, 양육관, 양육철학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양육신념의 정의에 차별적으로 정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Sigel(1985)의 신념에 대한 개념을 기반으로 양육신념을 정의한다면, 양육신념이란 아동의 양육과 관련하여 부모가 사실이거나 진리라고 믿는 지식이다. 이러한 양육신념은 부모가 양육현상을 판단하는 주관적인 기준으로, 아동의 발달을 파악하는 인지적인 틀이라고 볼 수 있으며, 양육행동의 준거가 되기도 한다.

신념은 무의식적으로 형성되기도 하고, 의식적으로 형성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신념들은 하나의 영역과 관련된 신념의 축으로 구조화되기도 하고 독립되기도 한다. 각 영역에 따른 신념의 구조들은 상호 연관될 수도 있고 별개의 것일 수도 있으며 개인에 따라 신념들 간의 일관성이 부족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의 신념구조는 논리적인 수도 있고 비논리적인 수도 있다. 한 개인이 가진 신념 체계는 여러 지식들로 이루어진 실제에 대한 불완전하고 주관적인 인식 복합체로 작용할 것이지만, 사물과 현상을 보는 개인들의 인식 틀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신념은 인생 주기를 통해 변하기도 하지만, 개인이 사실로서, 진리로서 받아들인 지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지식이 잘못으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따라 기존의 신념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다(Sigel, 1985). 따라서 부모가 양육신념으로 받아들인 지식은 그것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수정되기 전에는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지속되며 부모의 양육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고 행동의 표준이 되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양육가치가 양육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양육관은 사회에서 추구하는 세계관과 인간관에 부합하여 선택된 양육가치와 이의 실현을 위한 양육방식, 부모역할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지향하는 관점이다. 양육가치와 양육관은 모두 부모가 양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선택된다. 양육가치는 부모가 속한 사회·문화의 영향을 받아 선택되기도 하지만, 양육철학을 통해 사유된 결과로 형성되기도 한다. 사유를 통해 구성된 양육철학의 요소들과 일관성을 이룬 양육가치는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다. 양육철학 내의 양육가치가 다른 요소들과 논리적 일관성을 이룬다는 측면에선 양육관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양육철학과 양육관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양육관이 사회·문화에서 추구하는 가치관과 인간관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양육철학은 양육문제를 가져오는 양육 원리에 대해 비판적 성찰을 하고, 새로운 원리의 구성을 통해 양육이 일어나는 세계 내의 존재와 관계, 현상들에 대해 성찰하고 사유하여 양육에 관한 새로운 인식 틀과 가치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한편 양육가치, 양육태도, 양육신념을 부모가 가진 하나의 양육 이데올로기로 보는 학자들이 있다. 즉 Rokeach(1968), Kreitler와 Kreitler(1976)는 태도와 가치가 신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Rokeach(1968)는 태도를 사물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어떤 선호적인 방식으로 비교적 지속되게 반응하게 하는 신념의 조직이라고 하였으며, 양육가치, 양육태도, 양육행동의 자기보고를 양육신념으로 해석하였다(Schaefer & Edgerton, 1985). 안지영(2001)은 부모의 양육신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발달에 관한 신념과 양육가치를 양육신념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양육신념이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이며 신념을 가치와 별개로 보는 Sigel(1985)의 입장과는 다르다.

Schaefer와 Edgerton(1985), 그리고 Segal(1985) 등은 양육신념과 양육가치를 별개의 개념

으로 차별화하여 연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해 갖는 생각이나 믿음을 양육신념으로 보고 연구해 왔는데, 부모가 생각하는 양육의 인지적 요소의 개념으로 양육신념 외에 양육가치, 양육관, 양육철학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들 간의 차별적 개념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철학이라는 학문은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양식을 다루며, 이 양식은 후천적으로 재구성된 언어적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철학이 추구하는 이 언어적 건축물은 존재의 객관적 조건으로서 물리적, 지적, 정서적으로 완전히 만족되어 자연과 문화적 조건과 조화를 이루어 인간의 마음과 몸이 가장 편안할 수 있는 인식의 거처다. 철학에서 존재 조건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조건은 생명체의 안녕과 행복이며, 철학에서의 조화는 구성 요소들 간에 일관성을 이루어 모순이나 갈등이 없어야 한다. 철학적으로 재구성된 인식양식은 우주적·형이상학적 전체를 포함하여 모든 경험, 모든 사건, 모든 현상들을 투명하게 인식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게 구성된 틀이다(박이문, 2006).

지금까지 양육철학에 대한 연구는 정서양육 철학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연구된 바가 없으며, 양육철학에 대한 개념 정의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양육철학은 양육에 큰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로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소임에 틀림없으므로, 양육철학의 개념을 정립하는 일은 중요하다. 양육신념이 양육에 관하여 사실로 믿는 지식이고, 부모가 이 지식을 수용하여 신념체계 혹은 신념 복합체를 형성하여 양육에 관한 사건이나 현상을 판단하는 주관적인 인식 틀을 형성한다고 하면, 양육철학 역시 양육에 대한 인식 양식이라는 측면에서 양육신념과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육철학은 양육신념과 달리 양육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인식의 구조의 틀임과 동시에, 구성 요인 간 일관성을 이루어 재구성된 조화로운 구조라는 점에서 양육신념과는 차별화된다.

Ⅲ. 서양과 우리나라 양육철학의 비교

지금까지 양육철학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사상가들이 완전한 체계를 구성한 것은 아니더라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양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양육에 대한 사고를 발전시켜 왔다. 사회에 따라서는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를 기반으로 한 양육철학에 따른 양육을 실천하기도 하였다. 역사적으로 특정한 사상과 종교가 한 시대를 지배하며 양육에 깊이 영향을 주었던 것은 대표적으로 서양의 기독교와 동양의 유교였다. 본 장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서양의 성서 기반의 기독교 양육철학과 우리나라의 유교, 동학의 양육철학을 비교하면서 양육철학의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조합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서양의 기독교 양육철학

서양의 중세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인간과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다. Tillich(1995)에 의하면 종교는 문화에 의미를 주는 실체라고 하였는데, 서양의 중세는 기독교가 인간들의 삶과 문화를 완전히 지배했다고 할 정도로 기독교적 사회였다. 그 당시 인간의 사고와 행동 그리고 양육의 바탕은 성서에 있었다. 따라서 성서를 기반으로 한 기독교 양육철학이 형성되었다. 성서에서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아동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 부모와 자녀의 인간관계를 어떤 입장에서 보는가 하는 것은 기독교를 세계관으로 받아들인 사회에서 양육철학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성서는 해석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피조물로 본다. 아동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창조된 존재로 본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그러나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라는 명령을 받고 자녀 양육에 대한 권위와 책임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초기 기독교 시대인 구약시대엔 가정에서 신앙을 기반으로 한 양육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인식했기 때문에 양육자로서의 부모의 책임과 권위가 절대적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신약시대에도 이어져 부모는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우선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졌다(최정민, 2015). 따라서 그 당시 기독교적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인간관계는 대등한 관계라기보다는 양육의 책임이 있는 권위를 가진 부모와 양육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아동의 위계적인 관계라 볼 수 있다.

한편,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볼 때에는 성서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피조물인 동시에 원죄에 의해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여긴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의 본성을 지녔으며 아동의 본성 또한 사악하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기독교적 지배가 강화된 서양의 중세 사회에는 아동의 사악함을 더욱 강조하여 아동을 순수함과 고유성으로 보지 않고, 어른의 축소판으로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였다. 성경에서 아동을 미성숙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며 지혜가 모자란 존재이므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한다. 아동의 영적 존재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이후 루터, 칼빈 등의 종교개혁가들에 의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서양의 중세 기독교적 양육철학에서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성서적 인간관에 근거해 아동을 사악한 존재로 보았으므로, 양육의 목적은 사악한 아동을 자제력 있고 신앙심 깊은 성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양육방식은 신앙심을 훈련하는 혹독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정옥분, 정순화, 2008).

2. 우리나라의 유교 양육철학

서구의 중세에 기독교 세계관이 양육철학에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는 유교주의 국가 이념에 따라 유교를 바탕으로 한 양육철학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유교주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나라 전통의 양육철학이 형성되었고, 부모들의 양육신념이 되었다.

유교의 세계관과 인간관은 주자의 성리학 이론에서 알 수 있다. 성리학 이론에 의하면 인간과 우주의 법칙은 하나이고 만물의 근원인 이(理)가 사물에 내재하면 자연법칙이 되고, 인간에 내재하여 도덕규범이 됨으로써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이승철, 2017). 그러나 이러한 선한 인간 본성의 인간관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외부와 접촉하며 정(情)이 발현되다보니 기질지성이 혼탁해져 악이 된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유교 양육철학에서는 아동을 미성숙하고 사악한 존재로 보는 아동관을 갖게 되었다(백혜리, 1996).

타고날 때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데, 이런 점에서 유교주의 양육철학에서는 도의적 품성도야를 주요한 양육목적으로 삼았다. 내적인 도덕 규율에 따라 기질지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하는 자인 군자는 유가의 이상적 인간상이었으며, 양육의 궁극적 목적은 자녀를 군자로 성장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아동은 부모의 모델링과 엄격한 훈육에 따라 양육되었다. 이러한 양육방식에서는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경우 체벌은 기본이었으며, 체벌을 수용하기 어려운 유아기에는 공포감을 주거나 자존감과 수치심을 자극하여 잘못된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기저에는 아이다운 감정은 미성숙하고 어리석은 것이며, 이는 잘못된 기질지성(氣質之性)이 발현되었다고 보는 사고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유교사회는 도덕적 규율에 의한 관계적 질서를 이상적이고 조화로운 사회로 보며, 이에 따라 삼강오륜(三綱五倫)이 조선사회의 기본 도덕 질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삼강오륜의 원리에 따라 조선시대는 위계질서를 중시하였으며, 특히 아동은 장유의 위계질서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에서, 성인과의 관계에서 존중되기 어려운 수직적인 관계 구조에 놓여있었다(정현숙, 유계숙, 어주경, 전해정, 박주희, 2002). 유교에서 부모는 내 몸의 근본이므로, 자녀에게 있어 부모는 효도하고 공경해야 할 대상이었고, 자녀는 사랑과 보호, 가르침의 대상이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상하의 수직적인 관계였으므로, 대화는 부모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부자는 공동운명체로 보았으므로 아동의 존재는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존중되기보다는 부모와의 관계로서의 가치와 공동체의 존재를 위한 도구적인 가치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가치관을 기반으로 전통사회에 가족집단주의가 발달하였다.

성리학과 달리 조선후기에 발달한 실학사상에서는 인간의 능력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인

성취에 따른 신분가능성을 인정하였으나, 신분 질서가 우선시되고 고착화된 당시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상이었다. 아동의 신분적 지위를 향상시키지는 못했지만 실학에서 주장하는 인간평등 사상은 조선후기 사회의 아동관에 영향을 주어 무조건적인 복종의 대상으로서의 아동존재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아동 체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고 인격 손상과 감정적으로 주어지는 체벌을 경계하였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유의 위계적 질서는 여전히 작동되었으며 변함없이 아동을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보았다. 다만 집안의 대를 잇는 가문의 영광을 가져올 도구적인 존재로서 아동의 가치가 부각되었다(백혜리, 1996).

3. 우리나라의 동학 양육철학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아동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아동 존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 것은 19세기 동학사상에서였다. 19세기에 등장한 동학사상의 세계관에 기반한 고유한 양육철학이 형성되었고, 종교 공동체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면서 아동의 양육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동학사상에서 아동은 포태(胞胎)될 때부터 하늘의 이치가 몸속에 모셔지기 때문에 한울님의 조화로운 기(氣)를 그대로 간직한 채 가장 이상적인 선의 상태로 태어나는 존재다. 태어날 때의 아동은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교육을 통하여 인간이 돌아가야 할 궁극의 목적으로 인식했다(송준석, 2007). 이러한 사상적 관점에서 동학의 종교공동체에서 아동의 지위는 존엄한 존재로서 성인과 대등한 위치로 격상되었고, 유교사회의 수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평등한 관계로 전환되었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강조하는 동학의 평등주의적 인간관을 기반으로 한 동학의 양육철학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아동에 대한 체벌은 한울님을 때리는 것으로 여겨 금했다. 또한 성현, 군자의 실현도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므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으로서 아동을 가르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유교적 양육철학에서 부모 자식을 운명공동체로 보는 인식이 동학의 양육철학에서는 자아성취와 천륜을 분리시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아동의 자유는 확대되었다(백혜리, 1996). 또한 아동의 존재가치를 국가, 민족의 미래라는 장래적인 측면으로까지 확대시켰다. 여기서의 아동의 미래 가치는 아동의 현재 삶의 가치가 장래 국가와 민족의 주체로 연결된다는 의미이다.

동학의 아동관은 근대적인 아동관으로서 1920년대 천도교 이론가인 이돈화와 소년운동 지도자인 김기전, 방정환에게 이어졌다. 이돈화가 찾은 양육철학의 해법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부모와 자녀의 대화는 인격체 간의 동등한 대화이어야 하고, 아동이 아동답게 놀 수 있도록 특성을 이해하고 대해주며, 의복과 음식은 아동의 신체

발육에 맞게 제공하는 것이었다(김정인, 2012). 그의 양육철학에는 사랑, 인격존중, 동등한 관계, 아이의 특성과 발달에 대한 이해, 아동답게 놀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소파 방정환은 동학이라는 전통적인 사상에 뿌리를 두고 근대적 아동의 개념을 발견하고 발명하였다. 근대적 아동이란 천부적 인권과 사회적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동심’이라는 독자적 심리 세계를 가진 주체적 존재이다(안경식, 2006). 동학의 인내천사상을 바탕으로 한 1920년대 소파의 아동운동은 아동과 인간에 대한 보편적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명지원, 2010). 이러한 전환은 부모의 양육철학을 넘어 교육과 사회 전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4. 기독교, 유교, 동학의 양육철학 비교

우리나라와 서양의 전통적인 양육철학은 당시를 지배했던 세계관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을 지원하는 양육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개별적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동은 부모의 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 신념은 특히 전통사회에서는 시대와 사회를 지배하는 세계관에 의해 형성된 양육철학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세계관 내의 인간관과 아동관, 양육가치, 부모자녀의 관계 형식 등은 부모의 실제 양육과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메타적 구성요소들로서 이 요소들이 조합되어 시대적인 양육철학과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시대적인 양육 문화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서양의 대표적인 기독교 양육철학과 우리나라의 유교와 동학의 양육철학에서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조합되어 독특한 양육문화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양의 중세를 지배했던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성서를 기반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태어나기 전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인간관과 아동이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미숙하고 사악한 존재라는 아동관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인간관과 아동관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가진 인간 육성이라는 양육가치가 결합되어 기독교 양육철학이 형성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세상의 목적이었던 중세 기독교적 사회에서 사악한 아동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엄격한 훈련의 양육이 필요했다. 초기 기독교 사회와 달리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는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교육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었으나(최정민, 2015), 부모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양육할 권한을 부여받은 존재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미숙하고 어리석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통제자이며 훈련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서양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 자녀를 기독교적 신앙인으로 키우기 위한 엄격한 훈련의 양육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우리나라의 전통사회를 지배했던 유교적 세계관에서는 인간이 선한 도덕적인 본성을 가

지고 태어난다는 인간관과 아동을 어리석고 사악하게 보는 아동관, 그리고 도의적 품성도야를 목적으로 하는 양육가치, 부모 자녀의 위계적인 관계 등이 결합되어 유교적 양육철학이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적 세계관과 유교적 세계관의 인간관에 대한 상이한 관점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미숙하고 사악한 존재로 보는 아동관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부모 자녀의 관계 형식에서도 부모가 가진 권위의 근원을 다르게 해석하나 권위적인 위계구조라는 측면에서 일치하고 있다. 두 세계관의 양육철학에서 추구하는 양육가치는 상이하나 아동관과 부모 자녀의 관계 형식이 일치함으로써 엄격한 양육방식으로 아동을 양육했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19세기에 등장한 동학의 세계관에 의해 인간을 한울님의 조화로운 기를 간직한 채 태어나는 선한 존재로 보는 인간관과 아동을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천부적인 인권과 독자적인 심리 세계를 가진 주체적인 존재로 보는 아동관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인간관과 아동관은 현존재로서 아동의 존중자체를 중시하는 양육가치와 아동을 성인과 대등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평등한 관계 형식과 조합되어 동학의 아동존중 양육철학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학의 양육철학은 서양 중세의 기독교 양육철학과 우리나라 전통의 유교 양육철학과 달리 아동을 한울님과 같은 존귀한 존재로 격상시켰으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식을 평등한 관계로 전환하였다. 동학의 양육철학에서 아동을 존중하는 양육철학 요소들이 조합됨으로써 아동의 체벌을 금지하고 아동의 자유를 중시하며 아동을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대우하는 양육방식이 동학공동체내의 양육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IV. 양육철학의 심리학적 관점

양육이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을 지원하고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양육철학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심리학이 발달하지 않은 전통사회에서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이나 인지발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당대의 세계관에 기반하여 양육가치를 설정하고 부모로서의 양육역할을 설정했었다. 20세기 심리학의 발달은 양육의 깊이 있는 조망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 장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심리학적 관점에서 양육철학을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신분석적 관점

인간 발달심리의 정신분석적 관점은 개인의 내적구조와 역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성격 형성을 설명한다. Freud의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인간을 선척적인 욕구를 가진 존재로 인식한다. 특히 Freud는 양육에서 개인의 성격을 결정하는 시기를 유아기로 보며, 이 시기에 욕구의 충족과 결핍이 무의식에 작동하여 개인의 성격과 행동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신명희 외, 2013). Freud의 욕구에 기반 한 정신분석 관점을 양육철학에 접목했을 때 가장 핵심은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이 욕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유아기에 적절한 욕구 충족을 해주는 양육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언어 기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유아의 욕구 충족을 위해 중요한 것은 자녀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를 인지하는 부모의 민감성과 자녀의 욕구에 대한 반응성이며, 자녀의 입장에서 자신의 욕구를 부모에게 표현할 수 있는 상호작용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양육철학을 구성한다면 무의식에 기반 한 욕구 충족의 양육철학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Erikson은 심리사회 이론에서 인간의 성격이 사회적 관계와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역동성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이론을 양육철학에 접목했을 때 핵심은 각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서 주요 사회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이다. 그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지지를 각 발달 단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발달을 이루게 하는 요인으로 보았다(신명희 외, 2013 재인용). Erikson의 심리사회 이론에 기반 한 양육철학을 사회적 지지의 양육철학이라 한다면, 사회적 지지의 양육철학에서는 아동을 사회적 관계 내에서 상호작용하며 사회적 지지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보며, 부모는 아동의 건강한 심리사회적 발달을 위해 사회적지지 기반을 마련하고 지지적 도움을 주는 존재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은 일방적이지 아니며, 상호 소통이 가능한 쌍방향적인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겠다.

또 다른 정신분석적 관점에 있는 Adler의 개인심리학에 의하면 개인들은 자신의 성격을 주체적으로 창조하나, 사회적 관심이 어린 시절 형성된 열등감을 극복하고 성격에 해당하는 건전한 생활양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배경이라고 보았다(김동배, 권중돈, 1998). Adler의 개인심리학 이론을 양육철학에 접목했을 때 핵심은 사회적 관심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긍정적 자아발달을 이루게 하는 요인이라는 점이다. 사회적 관심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공감이며, 나아가 전 인류에 대한 관심이기도 하다. 사회적 관심은 타인과의 원만한 교류 속에서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서 나타난다. 따라서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보는 인간관을 기반으로 하여 공감적이고 반응적인 상호작용과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양육철학을 사회적 관심의 양육철학이라 할 수 있겠다.

2. 인지주의적 관점

인지발달은 양육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인지발달과 관련한 양육철학의 심리 이론적 기반을 인지발달과정에 대한 이론을 정립한 대표적인 학자인 Piaget와 Vygotsky의 인지발달에 관한 이론에서 접목할 수 있을 것이다.

유기체인 아동의 주체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인지발달을 가져온다고 본 Piaget의 이론에 근거하여 볼 때, 경험과 조작의 적극적 활동으로 동화와 조절을 하면서 대상에 대한 평형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인식 주체의 능동적인 구성활동을 통해 인지구조인 도식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이미진, 2009).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을 인지발달 양육에 접목했을 때 핵심은 아동이 환경과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으로 인지 도식을 형성한다는 점이다. 이 양육철학에서는 아동을 인지 도식 형성의 주체로 인식하며, 부모는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고, 인지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촉진자라 전제할 수 있다.

한편, Vygotsky는 언어적 상징기호를 사용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인지발달을 촉발한다고 보았는데, Wertsch와 Stone(1985), Zinchenko(1985)는 Vygotsky의 도구 및 기호를 매개로 한 활동을 언어·상징 등의 도구를 통한 외적 조작 결과의 내적인 의미화 과정으로 해석하였다(송명자, 1986 재인용). Vygotsky의 사회문화 이론을 양육철학에 접목했을 때 핵심은 언어적 상징기호에 의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내적인 의미화 과정을 통해 인지발달을 이룬다는 점이다. 이 양육철학에서 아동은 부모를 비롯하여 자신보다 사회적 경험이 많고 발달을 이룬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 배우는 학습자이며, 부모는 자녀에게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공하고 자녀의 인지발달 수준을 파악하여 발달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보조자이다. 이 양육철학을 기반으로 한 양육활동에서 부모는 아동이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문화적 유산을 자원으로 하여 아동과 담화하며 아동의 내면화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

3. 인본주의적 관점

인본주의 이론에서 인간은 자신의 행동과 경험의 중요한 결정자며,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다. Rogers의 인본주의 이론에서는 자기(self)에 관한 것에 초점을 두고 개인을 행동의 주체로 보기 때문에 현상학적 이론이라고도 한다(최옥채, 박미은, 서미경, 전석균, 2002). 현상학적 인본주의 심리학자 Rogers가 전제하는 인간은 합리적이고 유목적적이며 자아실현의 경향이 있어 자기지시적인 미래의 목적이 있는 방향으로 스스로 방향을 결정하고 동기를 포함한 에너지를 지향시킬 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성장가능성은 선천적인 것이며, 이는 근본적으로 자신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고 한다(Thorne & Sanders, 2017).

Rogers의 이론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긍정적 관심을 받고자하는 욕구가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착한아이처럼 행동해야 사랑과 애정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아이는 자신의 유기체적 평가에 따르기보다 부모의 기대와 가치수준에 자신의 기준을 맞추고 행동하게 된다. 부모에 의해 조건화된 긍정적인 관심의 지속은 아동의 규범과 기준으로 내면화되어 스스로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실현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최옥채 외, 2002). 따라서 Rogers의 인본주의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아동이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관심을 받고자하는 강한 욕구를 이해하는 동시에, 부모의 기대에 아동이 맞추도록 훈육하거나 착한아이 이미지가 나타날 때만 칭찬을 하는 등의 보상보다는 존재 자체를 수용하고 자녀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며 자아실현을 지지하는 양육철학이 필요하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양육철학의 유사 개념들과 양육철학 개념이 차별된다는 점을 밝혔으며, 서양과 우리나라에서 발전했던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는 양육철학들을 비교함으로써 각 양육철학 내에 어떤 구성요소들이 조합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인간과 양육의 심리학적 관점을 통해 양육철학을 심리학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본장에서는 양육철학의 개념에 대해 좀 더 논의를 하고 양육철학의 개념 정의를 한 후, 양육철학의 심리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국 부모의 양육철학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 유교, 동학의 양육철학 비교한 결과 각 양육철학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태어나는가 하는 인간관과 아동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 하는 아동관,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규정되는가 하는 부모자녀 관계 형식의 구성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각 양육철학에서 추구하는 양육가치는 자연과 인간의 존재 방식을 결정하는 세계관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양육철학의 구성 요소들이 조합되어 세계관에 맞는 양육철학의 의미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양육이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돕는 총체적 과정으로서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양육철학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양육철학의 구성요소로서 심리학적 요소를 추가하고자 한다. 따라서 양육철학은 자녀의 전인적 발달에 대한 지원을 이끄는 인간관, 아동관, 인간관계 형식, 양육가치, 심리적 요인 등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의미구조를 제공하는 체계라고 볼 수 있다.

양육철학은 시대를 지배하는 세계관을 통해 형성되기도 하고 개인의 반성적 성찰과 사유를 통해 형성되기도 한다. 양육 전반에 관한 일관된 인식 및 가치체계를 구성하는 일은 인간과 아동의 존재 조건,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식, 양육에서 중시하는 심리적 요인, 그리고 가치관에 기반한 양육의 궁극적 가치를 구성하여 조합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 이런 조합으로 형성된 구성체는 양육 전반에 관해 메타적 요소로서 작용하는 방향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육철학의 개념을 ‘양육실제와 양육자의 양육태도 및 행동에 배경을 제공하는, 부모의 양육 전반에 대한 인식 및 가치체계가 일관되어있는 메타적 구성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광복 이후 형성된 현실적이고 적응적인 양육 패러다임이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형국이다. 많은 문제를 초래한 기존의 양육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새로운 양육철학의 방향성을 정립할 시점이다. 양육철학의 심리학적 관점과 우리나라와 서양의 양육철학에 대한 심층적 고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부모가 지향해야 할 대안적 양육철학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의 삶의 태도와 관련하여 자아실현의 양육철학과 민주적 양육철학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오랜 유교적 전통으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부모 자식 간 일체감과 연대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최상진, 1997). 또한 유교적 가치관에 의해 형성된 가족주의는 부모로 하여금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이고 가문의 성공이라는 의식을 갖게 한다(이원영, 1998). 이러한 요소들은 오늘날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을 사교육에 길들여 좋은 대학에 가고 높은 사회적 지위의 직업군을 갖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치달게 하는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자녀들이 자신들의 기대에 따라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어 주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양육 환경에서 아이들은 자기를 실현할 수 없으며, 스스로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실현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동이 자기 행동의 주체로서 자기지시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자아실현의 양육철학을 제안한다.

이원영(1998)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들이 애정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가진다고 한다. 자율적인 양육보다 통제적인 양육을 한다는 것은 부모-자녀 관계를 대등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며,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일에 부모가 나서서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며, 양육의 방향성을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자녀 스스로 인식할 여유도 없이 잘못된 점에 대해 바로 훈육을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양육환경 하에서 아동은 책임감이 형성하지 못하며,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의지가 약하며, 아동 스스로 생각할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평등성에 근거하며 상호 인격체를 존중하고, 아동의 세계를 존중하는 민주적 양육철학을 제안

한다.

둘째, 아동의 인지발달과 관련하여 인지도식의 주체적 형성의 양육철학과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의 양육철학을 제안하고자 한다. 양육신념에 관한 우리나라 여러 연구들에서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동 발달이 환경에 의해 이루어지며, 부모의 영향이 결정적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설, 최혜선, 2008; 안지영, 2001; 황민선, 김미애, 2017). 이러한 인식은 아동을 발달의 주체로 보지 못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위험성을 내포하며, 부모의 아동 발달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부모가 원하는 아동을 만들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오랜 관찰을 통해 인간의 인지발달 단계를 이론화한 Piaget에 의하면 생물학적으로 성숙을 이루어가는 유기체인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주체적으로 조작과 재구성의 작용을 거쳐 인지도식을 형성해 간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모들은 인지발달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환경주의 신념에 따라 자녀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가져오는 환경주의 신념에 대한 대안으로 인지도식의 주체적 구성자를 아동으로 보는 인지도식의 주체적 형성의 양육철학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 인간이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라는 관점에서 볼 때, Vygotsky의 사회·문화 이론을 근간으로 한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의 양육철학을 제시해 볼 수 있겠다. 여기서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이라 함은 사회적 맥락 하에서 협동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며, 인류가 이룩한 문화적 유산을 자원으로 하여 아동과 담화를 통해 아동의 내면화를 돕는 것이다. 또한 이 양육철학에서는 사회·문화적 요소의 내면화를 넘어, 사회·문화적 요소의 조작적 작용과 비판적 성찰을 통한 재구성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문화 창달자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과정까지를 포함하고자 한다.

셋째, 사회적 관계와 관련하여 사회적 지지의 양육철학과 사회적 관심의 양육철학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상호지지를 주고받으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회적 관심을 확대해 간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를 종합 분석한 Kalecki와 Demaray(2002)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란 “개인의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일반적 지지나 특별한 지지행동에 대한 지각” 이다(조아미, 방희정, 2003 재인용). 사회적 지지는 인간의 전 생애 발달에 중요하나,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의 정상적인 발달에 매우 필요한 요소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선행연구결과, 사회적 지지의 여부가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과 부정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조아미, 방희정, 2003). 또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황성동, 박은혜, 2010). Erikson의 심리사회 발달단계에서 사회적 관계자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아동에게 건강한 발달이 올 수도 있고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따라서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근

거하여 각 발달단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위기를 이해하고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의 양육철학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인들의 삶은 전체 인류의 일부분이며(Adler, 1958), 사회적 관심은 보다 나은 미래 사회를 위해 추구해야 할 가치이다(Lundin, 1989). Adler(1958)의 개인 성격이론에서 사회적 관심은 건강한 심리 발달의 기준으로, 타인의 시각을 이해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공감하는 일이다. Adler(1958)에 의하면 사회적 관심을 지닌 사람은 자기문제를 잘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용한 유형이며,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타인과 잘 협력하는 사람이다. O'Connell(1975)에 의하면 사회적 관심이란, 이기적인 분위기의 현대 경쟁 사회에서 명백히 가르쳐야 할 부분이다(김순례, 2013 재인용). 따라서 우리나라 부모들의 과도한 경쟁주의 교육의 대안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협력하는 사회적 관심의 양육철학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문희, 윤지영(2002). 젊은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간 자녀 양육관 및 자녀양육태도 비교. **아동연구**, 6, 7-21.
- 김동배, 권중돈(199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학지사.
- 김동환(2019.5.23). 쌍둥이딸 “실력으로 1등” 향변 했다... 아버지 1심에서 징역 3개월. **세계일보**.
- 김순례(2013). **중학생의 자기격려가 사회적 관심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김은설, 최혜선(2008).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 연구**.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김정인(2012). 1920년대 천도교 소년운동의 이론과 실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3, 143-180.
- 김지신(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명지원(2010). 방정환의 아동교육 사상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 15(1), 85-110.
- 박이문(2006). **나는 왜 그리고 어떻게 철학을 해왔나**. 서울: 삼인.
- 박준희(1975). **한국인의 교육관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백혜리(1996). **조선시대 성리학, 실학, 동학의 아동관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1994). **교육학용어 사전**. 서울: 하우.
- 송명자(1986). Piaget와 Vygotsky의 이념에 반영된 활동의 개념과 그 교육적 적용.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논문집**, 12, 5-20.
- 송준석(2007). 동학의 아동 존중 교육사상과 실천에 관한 연구 : 소춘과 소파의 사상을 중심으로. **생태유아교육연구**, 6(1), 1-26.
- 신명희, 서은희, 송수지, 김은경, 원영실, 노원경, 김정민, 강소연, 임호영(2013).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신수진(1998).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안경식(2006). 소파 방정환의 아동교육운동에 있어 근대와 전통. **교육사상연구**, 18, 39-53.
- 안지성, 신세니(2013). 『행복한 우리가족』에 나타난 현대 부모의 양육관 분석. **어린이미디어 연구**, 12(1), 255-278.
-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미진(2009). **Piaget와 Vygotsky의 구성주의적 관점에 관한 도덕교육적 함의**. 석사학위논문, 청주교육대학교.
- 이승철(2017). **창의적 사유와 인성의 상관에 관한 동양교육적 시론**. 2017년 한국창의력교육학

- 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93-110.
- 이원영(1998). 한국인의 심리에 비추어 본 양육태도.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3, 1-18.
- 이진호(2019.5.13). 교수 미성년자 자녀 논문 공저자 등록 160편...14편 부정 드러나. News1.
- 임채광(2005). 사람됨으로서의 “양육” -게엘렌의 인간학적 교육관 연구-. **현상학과 현대철학**, 27, 71-97.
- 정옥분, 정순화(2008).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 정우용(2019.5.30). 구미시민 출산기피 주된 이유... “양육비 너무 많이 들어”. news1 뉴스.
- 정현숙, 유계숙, 어주경, 전해정, 박주희(2002). **부모학**. 서울: 신정.
- 조아미, 방희정(2003). 부모, 교사,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1), 249-275.
- 최상진(1997). **한국인의 심리특성**. 현대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문사.
- 최옥채, 박미은, 서미경, 전석균(200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파주: 양서원.
- 최정민(2015). **기독교 부모역할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한경자(2000). 아동양육과 간호역할. **부모자녀건강학회지**, 3(1), 95-101.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0). **한국의 아동과 어머니 제1권**. 서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홍승직(1969).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아세아연구**, 1, 2-7.
- 황민선, 김미애(2017). 어머니의 양육신념에 따른 그림책 선정 요인 분석. **한국출판학연구**, 43(3), 145-165.
- 황성동, 박은혜(2010).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사회적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4), 123-145.
- Adler, A. (1958). *The practice and theory of individual psychology*. Patterson, NJ: Littlefield, Adams.
- Kalecki, C. K., & Demaray, M. K. (2002). Measuring perceived social support: Development of the child and adolescent social support scales(CASSS). *Psychology in the Schools*, 39(1), 1-18.
- Kohn, M. L. (1969). *Class and conformity: A study in values*. Homewood, Ill: Dorsey Press.
- Kreitler, H., & Kreitler, S. (1976). *Cognitive orientation and behavior*. NY: Springer.
- Lundin, R. W. (1989). *Alfred Adler's basic concepts and implications*. Levittown, PA: Accelerated Development Inc.
- McGillicuddy-De Lisi, A. V. (1985). The relations between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cognitive level, In Sigel, I. E. (Eds.),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pp.7-24)*. Hillsdale, NJ: Erlbaum.
- O' Connell, W. E. (1975). *Action therapy and Adlerian theory*. Chicago: Alfred Adler Institute.
- Rokeach, M. (1968). *Beliefs, attitudes, and values*. San Francisco: Jossey-Bass.

- Schaefer, E. S., & Edgerton. M. (1985). Parent and Child Correlates of Parental Modernity. In Sigel, I. E. (Eds.),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pp.287-318)*. Hillsdale, NJ: Erlbaum.
- Segal, M. (1985). A study of maternal beliefs and values within the context of an Intervention program. In Sigel, I. E. (Eds.),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pp.271-286)*. Hillsdale, NJ: Erlbaum.
- Sigel, I. E. (1985). A conceptual analysis of beliefs. In Sigel, I. E. (Eds.),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345-371)*. Hillsdale, NJ: Erlbaum.
- Thorne, B. & Sanders, P. 박외숙, 고향자 역 (2017). **칼 로저스**. 서울: 학지사.
- Tillich, P. 김경수 역 (1995). **문화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Trommsdorff, G. (1989). Sozialisation und werthaltungen im kulturvergleich. In Trommsdorff, G. (Hrsg.). *Sozialisation im kulturvergleich*. Stuttgart: Enke.
- Wertsch, J. V., & Stone, C. A. (1985). The concept of internalization in Vygotsky's account of the genesis of higher mental function. In Wersch, J. V. (Eds.), *Culture, communication and cognition(pp.162-18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inchenco, V. P. (1985), Vygotsky's ideas about units for the analysis of mind. In J. V. Wertsch(Eds.), *Culture, communication and cognition(pp.94-11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